

외교부 :

각국과 '브릭스 협력' 새 단계로 발전시키길 희망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9일에 열린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국가 주석 습근평이 초청을 받고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번 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림검은 "브릭스 협력기제는 신형 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의 단결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 정상들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현재 국제 경제 및 무역 환경과 다자 체제 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광범위한 공

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는 브릭스 파트너 관계를 심화하고 전세계 남방 국가들의 리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빅브릭스 협력'의 고 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습근평 주석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현재 백년의 변혁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계 남방의 제1방진으로서 브릭스 국가들은 개방포용, 협력상생의 브릭스정신을 발양하여 '세가지

견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정상회의의 관련 합의를 리행하고 손잡고 '브릭스 협력'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

계로 발전시키으로써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한국, 정부조직 구조 개편

검찰청 폐지될 예정

7일, 한국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소속, 기존 검찰기관의 공소 기능을 맡게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소속,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편입되는데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1년이 지나야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 여당, 정부, 대통령실간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안에는 기획재정부 명

/ 신화넷

세계 최대 빙산 해체



약 40년전 남극 빙봉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A23a'로 불리는 빙산은 오래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빙산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미국 CNN 방송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영국 남극조사국(BAS)의 소식을 인용해 A23a 빙산이 여러개의 큰 조각으로 급속히 분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A23a는 면적 3,672 평방키로미터, 무게 약 1조톤에 달해 거대 빙산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했다. 그러나 위성 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A23a는 원래 크기의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남은 면적은 여전히 1,770 평방키로미터, 가장 넓은 곳은 60키로미터에 이른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A23a에서 엄청난 양의 얼음조각이 떨어져나왔다. 일부 큰 조각들은 면적이 400평방키로미터에 달하고 그보다 작은 많은 조각들도 지나가는 선박에 안전 위협이 될 만큼 크다. 영국 남극조사국 해양학자 앤드류 마이어씨는 "미국 국립빙센터 기준으로 볼 때 A23a에서 떨어져나온 많은 큰 얼음 조각들은 그 자체가 거대한 빙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A23a 빙산은 1986년 남극 펠리너-로네 빙봉에서 분리된 후 해저

에 걸려 웨델해에 30년 넘게 좌초되어 있다가 얼음이 녹는 등 여러 요인은 오래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빙산으로 기록됐다. 올해 3월에는 남대서양의 사우스조지아섬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 과학자들은 섬과 충돌해 팽진, 물결 등 동물 생태계에 위협이 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올해 5월, 이 빙산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 북쪽으로 표류했다. 최근 몇주간 A23a의 표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하루 최대 20키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했다.

A23a가 분해되면서 면적이 약 3,000평방키로미터인 D15a 빙산이 세계 최대 빙산으로 올라섰고 A23a는 2위로 내려앉았다. 연구자들은 남반구 불철이 다가오고 해수가 계속 따뜻해지면서 A23a는 계속 더 작은 여러 조각으로 신속하게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마이어씨는 앞으로 몇 주 안에 A23a가 계속 분해되어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빙산이 빙봉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은 자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최근 남극 빙봉의 얼음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핫이슈 문답]

미국, 한국 기업 직원 체포... 한국 대미국 투자 계속될가



된 한국 국적자들의 송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측과 비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현은 이번 망미에서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공장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직원들의 미국 출장 파견을 보류했다. 또한 예정된 미국 출장 예정자들에게 현 체류지 잔류 또는 즉시 귀국을 지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계획된 미국 출장 예정자들에게 여행 연기를 권고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국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

한국정부는 한미간 관세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도 세부 협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양국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국 투자 세부 실행 방안이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25일,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으나 회담 종료 불과 10일 만에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사태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진행중인 삼성그룹, SK 그룹 등 다른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수준을 넘어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신화넷

미국 이민집행기관의 직원들은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회사)이 합작 경영하는 배터리공장 및 관련 도급업체들을 상대로 돌발 집행 행동을 전개하여 합법적 신분인 475명 직원들을 체포했다. 이 중에는 300여명의 한국 국적자들도 포함되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은 왜 체포되었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사건이 한국의 대미국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 기업 직원들은 왜 체포되었을까

조지아주와 알라바마주에서 국토안보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특별수사관 스티븐 슈랭크는 5일 이 475명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 중에는 불법입국한 자, 비자 면제로 입국했으나 취업허가증이 없는 자, 비자를 소지했지만 체류 기간

이 만료된 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슈랭크는 이번 작전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지점에서 진행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집행 행동이라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작전전 몇달간 도급 업체와 그 하도급 업체들을 포괄적으로 수사해왔으며 관련 조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체포된 자들은 '불법 외국인'이라며 연방집행부처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미국에서 합법적 취업을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자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현지 고용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허가 조건과 엄격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단기 체류가 가능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이나 B-1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및 초기 설비 설치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현지 숙련 기술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한국 대통령실은 7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의 석방을 위한 교섭이 이미 무리되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이 전세계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신속 해결을 위해 체포자의 안전하고 빠른 귀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 양국은 세부 절차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미 한국대사관 총领事 조기중은 7일 조지아주 포크스틴에 있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구류센터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이 10일경 전세계로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 조현은 8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 체포

图说
我们的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